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8장 영감과 비평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8장 「영감과 비평」, 텍스트판 214-234쪽. 원 강연은 1880년 피츠버그 웨스턴 신학교에서 워필드가 신약 주석·문헌 교수로 취임하며 한 연설이다(각주 1).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취임 연설 자리에서 “현대 성서비평이 신약성경의 축자 영감 교리를 무너뜨렸는가?”라고 묻는다. 먼저 개혁파가 말하는 영감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기계적 받아쓰기가 아니라, 모든 말이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교리를 받치는 근거를 정리한다. 저자들 자신의 주장, 동시대 교회의 인정, 그리고 글 안에 그 주장과 모순되는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평이 교리를 흔들려면 네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하나씩 검토한다. 결론은 비평이 어느 것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교리를 새 토대 위에 더 단단히 세웠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무오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친다.

📜 절별 정리

📜 1. 들어가며 — 신조 서명과 이 강연의 질문

워필드는 먼저 취임 연설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지 말한다. 학교를 지키는 이사들이 새 교수가 자기들의 신앙과 신앙고백 문서에 정말 동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일이 요즘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회 안에 느슨한 신앙이 번졌고, 신조에 서명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성직자들이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신조 서명을 거쳐야 할 형식이 아니라, 오래 품어 온 신념을 기쁘게 스스로 고백하는 일로 하겠다고 밝힌다. 또 신조의 신학 체계를 먼저 깔아 두고 성경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출발하면 그 체계 말고는

공격받는 '축자 영감' 교리를 주제로 고르고, 범위를 신약성경과 '비평'이라는 이름의 도전으로 좁힌다.

1. 신조 서명은 형식이 아니라 기쁜 고백
2. 체계를 성경에 씌우지 않고 성경에서 끌어냄
3. 주제: 공격받는 축자 영감 교리
4. 범위: 신약성경, 비평의 도전으로 한정
5. 질문: 그 공격의 결과는 무엇인가

> —
>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 2. 교회의 영감 교리 ① 정의와 네 가지 설명

사람마다 영감론이 제각각이어서 워필드는 먼저 자기가 변호할 대상을 정한다. 바로 개혁파 교회의 전통 교리다. 이 교리에서 영감은 성령이 성경 저자들에게 베푸신 독특하고 초자연적인 영향이다. 그 결과 저자들의 말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전혀 틀림이 없게 된다. 이 영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 시인이나 천재가 받는 '영감'과 다른 초자연적인 것이다. 누가의 정확성은 꼼꼼한 로마 역사가의 수고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
- 신자의 회심과 성화를 이끄는 성령의 보통 사역과도 다른 특별한 것이다. 바울은 루터나 경건한 러더포드보다 오류를 막는 확실한 보호를 받았다.
- 일부 단어가 아니라 모든 단어에 미쳐서, 어떤 종류의 진술이든 똑같이 틀림이 없다.

워필드는 여기에 네 가지 설명을 덧붙인다. 첫째, 교회는 영감의 '방법'은 신비로 남겨 두고 '결과'만 정의한다. 둘째, 영감은 진리를 '얻는 일'(계시)이 아니라 '전달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셋째, 영감은 기계적 받아쓰기가 아니다.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말이며, 기계적이라는 비난은 가우센까지 오해한

믿는데 그 믿음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저자가 의식적으로 고른 단어가 동시에 성령의 말씀이다.

1. 영감: 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영향
2. 시인의 영감과도, 성화와도 다른 특별한 일
3. 모든 단어에 미친다, 진술마다 똑같이 무오
4. 방법은 신비로, 결과만 정의한다
5. 전부 신적이고 전부 인간적이다

> —
>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정의와 설명에 집중)

“모든 것이 신적이며 동시에 모든 것이 인간적이다”

📜 3. 교회의 영감 교리 ② 교리의 근거와 비평이 입증해야 할 네 가지

워필드는 여기서 교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교회가 이미 받아들인 이 교리를 비평이 흔들었는지 묻는 것이다. 비평이 교리를 위협하려면 교리가 기대는 증거를 무너뜨려야 한다. 일차 증거는 성경 저자들 자신의 주장이다. 이것은 순환논증이 아니다. 영감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정직하고 냉철한 사람이라는 것만 전제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진지하게 따져 볼 일이다.

이차 근거는 둘이다. 하나는 그 주장을 판단할 위치에 있던 동시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글 안에 그 주장과 모순되는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은 다음 넷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 (1) 신약 저자들은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다. (2) 동시대 교회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그 문서들은 위조문서다. (4) 그 문서들에 명백한 사실 오류나 모순이 있다.

1. 이 가역은 증명이 아니라 '공격 검증'

3. 전제하는 것은 영감이 아니라 정직성
4. 이차 증거: 교회의 인정, 반대 현상 없음
5. 비평이 넘어야 할 네 관문을 제시

> —
>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 4. 현대 성서비평 1: 신약성경 저자들 ① 권위 주장과 직접적 영감 주장

첫째 관문은 이것이다. 신약 저자들은 영감을 주장했는가? 워필드는 역사적·문법적 주해라는 학문적 방법을 적용할수록 그들이 영감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한다. 이 교리를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이것은 인정한다. 리하르트 로테(19세기 독일 신학자)도 신약 저자들이 아주 엄격한 의미의 정통 영감론을 지녔다고 보았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와 생애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초자연적 안내를 약속하셨다. 역사서 저자들은 자기 진술이 정확하다는 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는다. 보통 꼼꼼한 역사가일수록 자기 확신을 아끼는 법인데 말이다. 서신 저자들은 자기 가르침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까지 한다. 이 권위는 특히 '기록된' 편지에 대해 주장된다.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주장이라면 놀라운 오만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전달자일 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워필드는 더 직접적인 주장도 든다. 고린도전서 7:40에서 바울은 자기 '뜻'을 말하는 대목까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2:13은 하나님이 단어 선택까지 주셨다는 '단어 제공'(suggestio verborum)을 가르친다. 여기 쓰인 말이 레마(ῥῆμα, 낱낱의 말)가 아니라 로고스(λόγος)이니 단어와 상관없다는 반론이 있다. 워필드는 이 반론을 본질을 피하는 말로 본다. 영감은 낱낱의 문법 형태가 아니라 문맥 속에 살아 연결된 말들(λόγοι, 로고이)에 미친다는 것이다.

1. 비평적 주해일수록 영감 주장이 선명해짐

4. 고전 7:40 — 자기 '뜻'에도 성령을 주장

5. 고전 2:13 —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함

마태복음 10:19-20

사역 초기, 말할 것을 성령이 주시리라는 약속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11

생애 마지막, 같은 약속을 다시 하심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누가복음 21:12

같은 약속의 병행 본문(약속 내용은 21:12-15 문맥)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이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저자는 장만 표기. 흔히 14:26, 16:13)

요한복음 14장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16장 [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

고린도후서 10:7-8

주께서 주신 사도적 권위를 확신함

[7]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1:7-8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 가르침의 절대성

[7]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2

명령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 바울의 명령이 곧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11

거리낌 없이 명령을 내리는 예

데살로니가후서 3:6-14

명령을 거부하는 이와 사귀지 말라 — 권위의 구속력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

데살로니가후서 3:6

'우리에게서(παρά, 파라 — ~로부터) 받은 전통' — 바울은 전달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14

'이 편지에 한 우리(ἡμῶν, 헤몬 — 우리의) 말' — 기록된 편지에 권위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말로나 편지로 받은 가르침을 지키라 — 기록된 말의 권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14: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전서 2:13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12

복음이 성령 '안에서'(ἐν, 엔) 전해졌다 — 베드로도 같은 주장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2:18-19

이 책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경고 — 요한의 글의 권위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일서 5:10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함

>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2:13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한다 — 축자 영감의 직접 근거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5. 현대 성서비평 1: 신약성경 저자들 ② 신약을 구약과 같은 자리에

두 번째 논점은 이것이다. 신약 저자들은 구약을 단어 하나까지 영감된 책으로 믿었고, 신약의 글들도 그 구약과 같은 자리에 놓았다. 그들은 구약을 '성경'(γραφή, 그라페), '성경들',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르고, “기록되었으되”(γέγραπται, 게그랍타이)라는 말로 인용한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성경이 이르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같은 말이다. 그들은 구약의 인간 저자들이 성령 안에서 말했다고 하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소개되지 않은 구절까지 하나님께 돌린다. 이야기(내러티브) 부분조차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용한다.

예수님도 단어 하나, 동사의 시제 하나에 논증을 거셨다. 그리고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사도들도 그 본을 따른다. 디모데후서 3:16과 베드로후서 1:21은 구약의 영감을 직접 가르친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쓴 바울이 디모데전서 5:18에서 누가복음 구절을 구약 구절과 나란히 놓고 함께 '성경'이라 부른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을 '다른 성경'과 같은 자리에 둔다. 그러므로 신약 저자들이 신약의 완전 영감을 주장했다는 것은 다툴 수 없고, 비평적 주해는 이를 더 강하게 해 줄 뿐이라고 워필드는 결론짓는다.

1. '성경이 이르되' = '하나님이 이르시되'
2. 구약의 내러티브까지 성령의 말씀으로 인용

5.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성경과 같은 자리에

로마서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말한다고 표현

>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로마서 10:19

모세의 말로 인용하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1인칭 말씀

>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갈라디아서 3:8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

>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2:43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

>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누가복음 20:42

같은 사건의 병행 본문

>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사도행전 2:24

다윗의 말을 성령 안의 예언으로 다룸(번역본 표기. 문맥은 2:25-31, 특히 2:30 — 원서 확인 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마태복음 1:22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심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2:15

같은 공식의 반복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3:35

시편 구절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림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8

예레미야의 말을 “주께서 이르시되”로 인용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1:6-8

시편 구절들을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 하신 말씀으로 인용

6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히브리서 5:5

시편 2편의 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으로 인용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에베소서 4:8

시편 68편을 “그러므로 이르기를”로 인용 — 하나님께 돌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도행전 4:25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히브리서 3:7

시편 95편을 “성령이 이르신 바”로 인용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4:4

창조 기사(내러티브)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용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마태복음 22:32

“나는 ~의 하나님이로라” — 현재 시제 하나에 부활 논증을 거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요한복음 10:34

“너희는 신이라” — 한 단어에 논증을 거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 위 논쟁 중에 하신 말씀(정리자 보충 표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갈라디아서 3:16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 사도도 단수·복수에 논증을 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 구약 영감의 교훈적 진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5:18

누가복음 구절을 구약과 나란히 '성경'이라 부름(흔히 신명기 25:4와 누가복음 10:7로 확인됨 — 저자는 장절 미표기)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반열에 둠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6. 현대 성서비평 2: 속사도 교부들

둘째 관문은 이것이다. 동시대 교회는 이 주장을 거부했는가? 워필드의 답은 분명한 '아니오'다. 신약 문서들은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고, 실제로 받아들여졌다.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해도 일부였다. 사도 시대 바로 뒤의 교회 저술가들 가운데 구약은 하나님 말씀으로 높이고 신약은 낮추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신약의 가르침을 최고 권위로 삼았고, 신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썼으며, 사도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위를 분명히 구분했다.

예로 세 사람을 든다. 1세기 말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참으로 성령에 이끌려”(ἐπ' ἀληθείας πνευματικῶς, 47장) 썼다고 말한다. 바나바 서신은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인용한다.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의 헬라어 일곱 편지는 모아진 신약을 알았고, 그것을 구약과 같은 권위로 대했다. 이단들도 이 문서들의 권위를 인정했기에 그 말을 비틀어 자기 주장에 맞추려 애썼다. 2세기 첫 20년의 단편 문헌만 보아도 신약이 구약과 함께 하나의 거룩한 책 모음을 이루고 있었다고 워필드는 말한다.

1. 동시대 교회는 신약의 권위를 인정했다
2. 교부들은 신약을 구약과 동등하게 높였다
3. 클레멘트: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썼다
4. 바나바: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인용
5. 이단조차 권위를 인정하고 왜곡했다

> 이 절은 교부 문헌을 근거로 삼음(클레멘트 1서 47장, 바나바서 4장, 폴리캅 12장, 이그나티우스 등). 직접 인용한 성경 구절은 없음

📜 7. 현대 성서비평 3: 성경 ① 참된 비평과 외적 증거

저자들이 영감을 주장했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남은 공격 방법은 둘뿐이다. 문서가 위작이라고 하거나, 문서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먼저 위작 주장에 대해 워필드는 신약 27권이 모두 진본이라는 것이 올바른 비평의 성과라고 말한다. 신약 가운데 다섯 권만 진본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둘 다 '비평'을 자처하니 판결은 상식의 법정에서 내리자고 한다. 참된 비평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선입견 없이 사실에 열린 태도, 모든 사실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모으는 일, 결론을 신중하게 내리는 자세다.

그런데 부정적 비평은 처음부터 초자연을 부정하고, 사실을 비틀고, 허구 위에 역사를 쌓았다고 워필드는 본다. 그래서 학파마다 앞 학파를 무너뜨렸다. 파울루스는 슈트라우스에게, 슈트라우스는 바우어에게, 바우어는 자기 후계자들에게 무너졌다. 예를 들어 바나바의 마태복음 인용은 라틴어 번역에만 있다며 무시당했다. 그런데 티셴도르프가 헬라어 사본을 찾아내자, 비평가들은 이번에는 출처나 연대를 의심했다. 각주에서 워필드는 변증가도 선입견이 있다는 비판을 다룬다.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증거에 열려 있을 수 있다. 반면 초자연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범신론자나 유물론자는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외적 증거로 보면, 유다서·요한이서·요한삼서·빌레몬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베드로후서를 뺀 거의 모든 책이 사도 직후 교부들에게 인용된다. 가장 증거가 약한 베드로후서도 3세기 초에는 이미 정경에 들어 있었다. 이레나이우스·멜리토·디오니시오스 같은 2세기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책이 슬쩍 끼어들 수는 없었다. 이레나이우스는 사도 제자들에게서 전해진 책만 성경으로 받았고, 그는 포티누스와 폴리캅을 거쳐 사도 요한에게 이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베드로 저작을 따로 증명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정경에서 빼야 할 만큼 반대 증거가 있는가”이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타키투스는 베드로후서보다 늦고 드물게 인용되는데도 아무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또 폴리캅의 편지를

신약 책을 증언한다. 증거가 이렇게 사슬처럼 얽혀 있어서, 하나를 빼려면 2세기 문헌 전체를 무너뜨려야 한다.

1. 참된 비평: 열린 마음·철저 수집·신중 추론
2. 부정적 비평은 초자연 부정으로 결론을 정함
3. 비평 학파들은 서로를 무너뜨려 왔다
4. 베드로후서: 반대 증거가 없다는 게 핵심
5. 교부 증언은 사슬처럼 서로 묶여 있다

> —
>
> 이 절은 고대 문헌의 인용 증거를 다룸. 직접 인용한 성경 구절은 없음

📜 8. 현대 성서비평 3: 성경 ② 내적 증거

부정적 비평의 내적 증거는 두 주장이다. 신약 저자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 그리고 당시 역사와 충돌한다는 것이다(각주 12). 워필드의 답은 셋이다. 첫째, 불일치를 최대한 인정해도 위작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쓴 세속 역사서들도 진본으로 인정받는다. 둘째, 자연스러운 조화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셋째, 두 진술을 조화할 가능성이 있으면 모순으로 판정하지 않는 것이 역사 비평의 원칙이다.

예로 마태와 누가의 탄생 기사를 든다. 비평가들은 한쪽이 목자 방문이나 이집트 피신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모순'이라 부른다. 침묵을 모순으로 바꾼 것이다. 또 슈트라우스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한 사건으로 섞은 뒤 다섯 가지 불일치를 찾아냈다. 워필드는 오히려 신약이 놀랍게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페일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이를 보였듯 이 조화가 진리의 증거라는 것이다.

역사와의 일치도 마찬가지다. 누가복음 3:1의 루사니아는 오랫동안 오류의 대표 사례였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과 비문이 누가가 옳았음을 보였다. 누가가 구브로의 통치자를 '총독'이라 부른 것도 정확했고, 세스놀라가 찾은 비문에는 같은

꿰는 것과 같다고 워필드는 말한다. 그래서 신약은 냉철하고 정직하며 정확한 사람들의 산물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제 남은 쟁점은 하나다. 이 문서들의 현상이 스스로의 영감 주장을 무너뜨리는가?

1. 불일치가 있어도 위작의 증거는 아니다
2. 침묵을 모순으로 바꾸지 말라
3. 다른 두 사건을 섞어 모순을 만들지 말라
4. 루사니아·구브로 총독: 오류 주장이 뒤집힘
5. 정확한 역사 기록은 목격자의 증거다

> **누가복음 3:1**
> 루사니아 언급 — 오류로 지목됐다가 요세푸스와 비문으로 확인된 사례
>
>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 **사도행전 13:7**
>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 — 칭호의 정확성이 확인된 사례(저자는 장절 미표기, 정리자 보충)
>
>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 **마태복음 1:20; 누가복음 1:26-38**
>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난 천사 — 서로 다른 사건(저자는 장절 미표기, 정리자 보충)
>
> **마태복음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
> **누가복음 1:26-38**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누가복음 2:8-20; 마태복음 2:13-15

목자 방문과 이집트 피신 — 한쪽에만 있다고 모순은 아님(정리자 보충)

누가복음 2:8-20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

마태복음 2:13-15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 9. 추가적인 논의 — 성경의 현상이 영감 주장을 무너뜨리는가

워필드는 책이 진본이고 정확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마지막 반론을 다룬다. 성경 안의 현상들이 축자 영감과 충돌하는가? 그는 먼저 세 가지로 쟁점을 좁힌다.

- 기계적 영감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문체와 논증 방식에 드러난 인간의 흔적은 반론이 되지 않는다.
- '해가 진다', 로마제국을 '온 세상'이라 부르는 식의 일상 표현을 글자 그대로

-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구약을 요지로 인용하거나, 연설과 십자가 명패를 요지로 전한 것은 오류가 아니다. 구약 인용이 원래 뜻을 바꾼 경우는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다.

남는 것은 진짜 오류뿐이다. 그런데 조화가 '어렵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결코 참일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날을 28일과 30일로 다르게 적은 역사가들도 우리는 모순이라 하지 않고 조화를 찾는다. 같은 원칙을 신약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당시 남은 오류 후보는 셋이었다. 구레뇨의 호구조사, 드다의 반란, 다메섹의 아레다 왕이다. 워필드는 이렇게 답한다. 춤프트에 따르면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을 두 번 지냈다. 드다는 요세푸스가 말한 후대의 드다와 다른 작은 반란자일 수 있다. 아레다 문제는 그 무렵에만 로마-다메섹 화폐가 끊긴 사실로 보아 개연성이 높다. 성경과 세속 자료가 충돌하더라도 틀린 쪽이 세속 자료일 가능성이 적어도 같다. 그러니 신약을 처음부터 못 믿을 책으로 가정하지 않는 한 오류는 입증되지 않는다.

워필드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짚는다. 만약 현상이 영감 주장을 부정한다면, 잃는 것은 축자 영감만이 아니다. 저자들이 광신자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 영감과 영감 없음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 가우센도, 슈트라우스도 일관적이지만, 중간에 서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1. 인간적 흔적은 영감에 대한 반론이 아니다
2. 일상 언어를 글자대로 압박하지 말라
3. 저자가 의도한 만큼의 정확성을 보라
4. 오류는 '양립 불가능'까지 입증해야 한다
5. 완전 영감과 영감 없음 사이에 중간은 없다

> **누가복음 2:2**
> 구레뇨의 호구조사 — 오류 후보, 두 번 총독설로 답함(역주 표기)
>
>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사도행전 5: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고린도후서 11:32

다메섹의 아레다 왕 — 오류 후보, 화폐 증거로 개연성 제시(역주 표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마태복음 27:37; 마가복음 15:26; 누가복음 23:38; 요한복음 19:19

십자가 명패 문구의 차이 — 요지 전달이므로 반론이 아님(저자는 장절 미표기, 정리자 보충)

마태복음 27: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가복음 15: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누가복음 23: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요한복음 19: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영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10. 맺음 — 무오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워필드는 결론을 이렇게 모은다. 현대 비평은 축자 영감을 반박할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이 교리를 새 토대 위에 더 굳게 세웠다. 공식적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결과는 사실상 증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균형 잡힌 단서를 붙인다. 영감이 없었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깨어나 칭의·성화·영화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면 우리는 끝없는 불확실성과 오류에 시달렸을 것이다. 무오한 안내자를 잃은 사람들은 스스로 무오한

전해진다. 그러므로 그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삶과 생각을 거기에 맞추자고 기도하며 마친다.

1. 비평은 오히려 교리의 새 토대가 되었다
2. 영감 없이도 구원 진리는 가능했을 것
3. 그러나 확실성과 안전을 잃었을 것
4. 무오한 성경 대신 무오한 교회를 만든 이들
5. 결론은 논쟁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

> —
>
> 이 절에서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음

⚖️ 오해와 반론

📖 용어

영감(靈感)
성령이 성경 저자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들이 쓴 말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축자 영감(逐字靈感)
영감이 생각이나 큰 줄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미친다는 가르침. '받아쓰기'라는 뜻이 아니다.

완전 영감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똑같이 영감되었다는 가르침.

무오성(無誤性)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술에 틀림이 없다는 성질.

기계적 영감

계시와 영감의 구분
계시는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 주시는 것이고, 영감은 그 진리를 틀림없이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다.

단어 제공(suggestio verborum, 수게스티오 베르보룸)
하나님이 저자의 단어 선택에까지 관여하셨다는 뜻의 라틴어 표현.

성서비평 / 부정적 비평
성경을 역사적·문헌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비평이다. 그중 초자연을 미리 부정하고 성경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흐름을 워필드는 '부정적 비평'이라 부른다.

속사도 교부(사도 교부)
사도들 바로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등이다.

정경(正經)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책들의 목록. 신약은 27권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개혁파의 축자 영감은 기계적 받아쓰기가 아니다. 모든 말이 사람의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이라는 가르침이다.
- 신약 저자들은 분명히 영감을 주장했고, 신약을 구약과 같은 '성경'의 자리에 놓았다.
- 사도 직후 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부 증언은 서로 얽혀 신약의 진정성을 받친다.

- 그래서 비평은 교리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새 토대를 놓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9편 ·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 · 영감 교리의 역사와 비평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